

기사

그렇지만 소비자들이 농약에 관해 갖고 있는 상식은 한결같이 '농약은 위험스러운 것'이다. 사실 모든 신문방송들이 농약의 안전사용 기사보다는 농약으로 인한 피해사례만 수다하게 보도하다보니 자연스럽게 농약을 위험스런 것으로 규정짓고 있는 것이다.

식탁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주부들에게 농산물의 잔류농약은 늘 걱정거리다.

급격한 소득향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의 인식이 소비자들에게 확산되면서 불량식품과 함께 농약친 농산물의 문제는 관심거리가 아닐 수 없다.

최근 2~3년간 일간지에 보도된 농약에 대한 기사를 보면 대개가 농약중독으로 인한 피해사례이고 농약에 중독됐던 농민들의 이야기가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다.

어느 일간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매년 2만톤씩이나 살포되는 농약은 마치 독을 먹는 셈이며 중독발생률도 미국에 비해 30배가 넘지만 정부차원의 대책은 전혀 없었다면서 증산입국의 표어아래 보릿고개를 떨쳐보자며 마구잡이로 뿌린 농약의 양금들이 우리를 몸속에 차곡 차곡 쌓이고 있다고 쓰고 있다.

농약기피증 조장하는 매스컴의 친절(?)

또다른 일간지는 눈에 제초제를 뿌리고 나서 잠시후 갑자기 토하고 속이 튀틀리면서 골치가 아프고 어지러운데다 근육경련이 나서 몸을 전혀 가눌수도 없었고 곧 혼수상태에 빠졌다는 농민의 이야기를 실고 있다.

대부분이 이러한 기사이다. 그러니 소비자 입장에서 볼때는 농약은 그야말로 대단히 위험스러운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자연히 소비자들은 언젠가부터 무공해 농산물을 찾게 됐고 이런 바람은 소위 브랜드 청정야채란 이름으로 소비자 앞에 나타나 30~50%가 비싸도 판매가 급증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매스컴 보도를 보면 농약과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청정야채를 기르는 곳이 전국에 50여군데나 된다는 것이다.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거부감은 수입농산물에서도 마찬가지다. 몇해전 미국의 자몽사건은 기억에도 생생하며 그렇게들 좋아하던 바나나도 농약을 듬뿍 뿌린다는 말에 소비가 크게 줄어들었다.

얼마전 서울에 있는 모상업TV에서는 농약을 안친것을 고르려면 벌레가 먹었거나 시들시들한것을 고르면 된다는 아주 친절(?)한 방송까지 하고 있으니 소비자에게 농약기피증을 유발하게 만들고 있는것 같다.

어디를 봐도 농약사용이 품질 좋은 농산물을 생산하게 한다거나 또 농약 사용시에 사용수칙을 지키면 안전하다는 등의 안전성 계도기사는 없다.

그러니 이런 매스컴에 의해 현재 사용중인 농약은 전

편집위원 칼럼

농약에 대한 매스컴의 보도태도와 소비자의 인식



“필요한줄 알지만 걱정돼요”

농약불신 해소에 모두가 발벗고 나서야

부 맹독성이고 농약 뿌린 농작물은 먹지 못할 것이 되고 있는 것이다.

70년대 중반 우리나라가 한창 식량 증산에 열을 올리고 있을때 TV를 통해 방영되는 농약뿌리는 장면은 꽤나 시원스런 장면이었고 근대화 농촌의 상징물이던 것처럼 여겨지던 때가 있었다. 그때는 '위험한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던 때였다.

농약의 덕분으로 식량증산을 이룬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그후 20여년-세월은 많이 흘렀고 이제는 너나할것 없이 건강을 생각하는 때이니 작물의 병해충을 죽이는 농약이니 이것을 먹을때 사람에게도 피해가 있으리라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생산자 안전사용 소비자 신뢰로 이어져야

매스컴은 이렇다치고 농약을 사용하고 있는 농민들에게도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약치는 일이 힘들다고 여러 종류의 농약을 적정량 이상으로 사용하는 농민도 있으며 또 어떤 농민은 출하농산물의 껍질을 쫄게 하기 위해 수확직전에도 농약을 뿌리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이러한 모든 것이 농약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진 것이라 할때 어찌 책임을 도시소비자들 한테만 돌릴수 있단 말인가.

물론 농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농작물의 상품성과 생산량이 현격하게 떨어져 수입이 줄어들 것은 뻔한 일이지만 자신의 건강과 소비자들의 건강을 해치는 일은 이제

는 없어져야 할것이다.

최근 어느 주부들 모임에서 농약과 소위 무공해 농산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적이 있다.

몇마디 추려보면,

A주부: 농작물 재배에 어떻게 농약을 안쓸수 있겠는가. 농약은 쓰되 소문처럼 많이 쓰는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B주부: 농작물을 직접 재배한 농민도 자기가 생산한 농작물은 농약을 많이 뿌렸기 때문에 안먹는다는 얘길 들었다. 그것이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만일 그렇다면 문제가 아닌가.

C주부: 집에서 텃밭에 고추를 농약을 안치고 길러왔는데 진딧물이 하도끼어 고추나무가 죽고 말았어요. 그런데 시중에는 왜 무농약 쌀이라든가 여러 농산물이 어떻게 그렇게 많은지... 그건 도대체 어떻게 길르는 것이죠?

이 주부들은 대체적으로 농약의 필요성은 알면서도 매스컴에서 익히 들어온대로 농약이 쳐진 농산물에 대해서는 걱정을 안할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들려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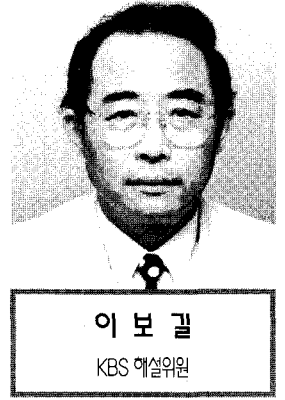
이제 농약업계는 이런 소비자들의 농약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야 할 때이다.

소비자들의 농약인식이 고쳐지지 않는 한 소위 청정야채농장은 계속 늘어날 것이며 농약업계도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인체에는 해를 주지않는 농약의 개발이라든가 잔류기간이 짧은 농약의 개발로 소비자들의 농약불신을 하루속히 불식하는 일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고 매스컴 등을 상대로 농약안전사용 보도요청, 대농민 계도, 소비자들의 농약바로알기 행사개최 등의 일대 캠페인을 전개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래서 '농약은 위험한 것'이란 고정관념을 타파해야 할 것이다.

정부도 이제 소비자들의 농약불신풍조를 없애기 위해 인체에 무해한 농약개발에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불량농약의 지속적인 단속과 농약사용농민에 대한 계도, 그리고 반상회를 통해 농약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활동도 아울러 펼쳐야 할때라고 생각한다.

농약정보



이 보 길
KBS 예설팀원

